

추모의 글

이수일 警友님! 당신은 良心의 公人이었습니다

님은 갔습니다.
이 풍진세상 모든 명리를 홀출 떨쳐 버리고 훌쩍 떠나갔습니다.

님이 63세의 생애를 스스로 매듭지었다는 부음을 들었을 때 15만 현직경찰과 120만 전직 경우들은 청천벽력같은 충격에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100세를 살아도 이승과의 작별이 서러워 단 몇 살 아니 단 며칠이라도 생명연장을 위해 불사약을 찾는 것이 인 지상정이었던님은 이제 겨우 이순을 갓 넘은 원숙의 나이에 한 인생에 종지부를 찍었으니 어찌 이런 결말을 스스로 지어 버렸단 말입니까?

아속합니다. 서글픔니다. 비록 의리의 길, 선비의 길, 책임의 길 때 문이라고는 하나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만큼 그렇게 현실이 님을 죽음의 나락으로 몰아갔단 말입니까?

생각할수록 기가 차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생전의 님을 떠올리며 하염없이 눈물이 쏙뚝 끝에 마침내 그 눈물은 통곡으로 변했습니다.

님이며!
지금 정국의 경우가죽들이 흘리는 강물 같은 눈물을 보십니까?
땅을 치며 통곡하는 천지를 뒤흔드는 저 호곡(號哭)소리를 들으십니까?

우리는 넘겨서 저승길로 떠나셨다는 참담한 소식을 들었을 때 헛발이거니 했습니다.

거짓이기를 바랐고, 그런 허무맹랑한 말이 어디 있느냐고 마구 소리치며 완강히 부인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

다.
그러나, 님의 최후는 사실로 밝혀졌고, 신문과 방송은 연일 님의 소식을 대서특필, 이 땅을 슬픔과 분노와 역겨움과 서글픔 속으로 몰아갔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삼 님의 생애를 되돌아봅니다.

님은 일찍이 명문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신후 국가의 동량이며 국민의 수임자가 될 것을 뜻하고 1971년 30세 짙푸른 상록수 같은 나이에 제19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경찰에 투신, 그로부터 25년간, 경찰대학장을 역임하는 등 명예로운 경찰인으로서 조직에 큰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이어 감사인 감사위원과 감사원 사무총장, 한국감정원 원장을 거치면서 경찰인의 존경과 촉망을 한 몸에 받았고, 파묵한 성품·원만한 성격·왕성한 책임감·질서를 최우선 가치관으로 삼는 평소의 언행이 인정되어 국가정보원 국내담당 제2차장으로 승차되었다가 2003년에는 호남의 유수한 최고학부 호남대학교 총장으로 발탁되어 오늘에 이르렀음을 알고 있습니다.

님은 온 경찰인의 자랑이었습니다.
님은 온 대학생의 진정한 스승이었습니다.

님으로 하여금 비극적인 종말을 선택하게 한 원인을 두고 세간에는 설왕설래 말도 많습니다.

그 동안님은 국정원 2차장 재직시절의 국정원 도청과 관련, 지난 11월 11일까지 3차례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님은 검찰의 국정원 불법도청수사와 관련, 자신의 상사인 전 국정원장과 전임자인 전 국정원장 등 두 사람이 구속되자 괴로움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검찰수사에 따른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신문의 보도도 보입니다.

필자는 그 엄청난 불법도청사건에 대해 알기 앞볼할 처지에도 있지 않거니와 그 잘 잘못을 지탄하거나 하는 입장에

도 있지 못합니다.
다만 필자는 막대한 국가예산과 장구한 세월이 투입되어 육성된 유능한 고급인력 한 사람을 여처구니없게 잃었다는 공분을 금할 길 없는 것입니다.

검찰에서도 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조사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님은 스스로 자기 생명을 불모로 그런 끔찍한 최후를 자초했다 말입니까?

사랑하는 부인과 자녀들, 친척과 친지들, 호남대학교 대학생들, 아니 120만 경우들, 수많은 경찰가족은 어찌하라고 홀로 떠나셨단 말입니까?

자신을 신임하고 국가의 요직에 앉혀 주고 막중한 책무를 맡겨준 전임 상사가 구속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이 미쳤을 영향을 생각하며 밤새 고민했을님은, 끝내 스스로를 처단함으로써 자신의 언행으로 말미암아 영어의 몸이 된 상사에게 사죄를 한 것입니다.

국록을 추내고, 국가재정을 줄먹고, 국가기강을 흐려놓고도 책임질 줄 모르는 공직 풍토에서 님은 상사에 대한 의리 하나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버렸습니다.

고매한 정신, 왕성한 책임감 없이는 단행할 수 없는 님의 단호한 결심에 우리는 그저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아! 우리는 지금 님이 남겨주신 위대한 교훈을 가슴깊이 새깁니다.

“인간의 양심 앞에는 생명이란 홍모(鴻毛)와 같은 것, 국사(國事)든 사사(私事)든 스스로 자결(自決)하라!”

그러나 어찌합니까?
이제는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으니 백마디 한탄인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저 머리 조아려 가신님의 명복을 빌 따름입니다.

극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

국락왕생하소서!